



‘종자산업 현장’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확산 자리 마련

- 농촌진흥청, 22일 김제서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공유회’ 열어
-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프로그램 활용 방법 소개, 촬영·분석 실습도

※ 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3:00,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 대강당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종자산업 현장에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10월 22일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공유회’를 연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종자산업진흥센터, 한국영상식물학회, 표현체 참조표준 데이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기술 공유회는 2026 국제종자박람회와 연계해 마련됐다.

디지털 표현체는 작물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종자, 잎, 줄기 등의 관찰 가능한 특성을 영상과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작물의 형태와 색상 등 다양한 특징을 단시간 대량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들 수 있어 작물 특성 연구, 인공지능 학습 등 디지털육종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술 공유회에는 종자 기업, 농업기술센터, 대학 등에서 이미지를 활용한 종자 분석에 관심 있는 담당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과 프로그램 활용 방법, 사례를 듣는다.

또한, 영상분석 기술을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장치 설치와 기술 활용 방법 등을 실습하고, 현장 기술 수요 조사와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종자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 촬영부터 데이터 수집·처리·분석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 시간도 마련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인 노트북과 업무에 활용할 종자를 준비해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익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바로 상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디지털육종지원과 권수진 과장은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술 공유회와 현장 상담 등으로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을 민간 연구와 산업 현장에 확산하고,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공동연수회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디지털육종지원과	책임자	과 장	권수진 (063-238-4551)
		담당자	연구관	백정호 (063-238-4670)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호				

□ 개요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하여 기술센터, 종자기업, 대학 등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 주관: 국립농업과학원, 종자산업진흥센터, 한국영상식물학회, 표현체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 일시 및 장소 : '26. 10. 22(목) 13:00~17:00,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 대강당
 - * 등록: 10.20일까지 한국영상식물학회 홈페이지 신청(담당자: 063-238-4670)
 - * 컨설팅 신청: 분석 기술 현장적용(장치, 활용 등)은 현장기술수요조사서 현장 제출 [붙임3]
- 참석대상 : 이미지를 활용한 종자분석에 관심있는 담당자
 - * 실습 준비물: 개인노트북, 준비프로그램(기관 일괄제공), 업무활용 실험재료(종자)
- 내용 : 프로그램 활용 교육, 디지털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실습

□ 주요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3:00~13:05	5'	○ 인사 말씀	
13:05~13:10	5'	○ 축하	
13:10~13:20	10'	○ 영상분석 참가자 소개	
13:20~14:00	60'	○ 디지털 분석 사례 및 프로그램 활용 교육	
14:00~15:40	100'	○ 실습 진행	
15:40~16:00	20'	○ 현장기술수요발굴 및 컨설팅 안내	

□ 향후계획

- 종자기업 대상 워크숍 만족도 등 현장 평가 후 현장기술수요발굴
- 민간기업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영상분석 기술 지원 확대